

# 16세기 정로위에 대한 이해

강 명 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적사실들을 바로 평가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김일성전집》 제40권 111페이지)

16세기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은 문란해진 나라의 군사제도를 바로잡고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여 외세의 침략에 대처할 대신 당파싸움만 벌리면서 저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 결과 나라의 군사력은 심히 약화되였다.

이 글에서는 16세기에 존재한 정로위의 조직목적과 그 신분적구성,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당시 군사제도의 문란상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정로위의 조직목적과 그 신분적구성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16세기에 이르러 조선봉건왕조의 군사력이 심히 약화된 원인은 봉건통치배들이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는 사업을 일관성있게 진행하지 못한 결과 종전의 여러 병종들의 임무가 유명무실해진데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을 수습하기 위하여 새롭게 조직된 병종이 바로 1512년에 조직되어 16세기말까지 존재한 정로위였다.

16세기에 봉건정부가 정로위를 조직한 목적은 우선 당시 문란해진 군사제도로 하여 부족되는 병력을 충당시키려는데 있었다.

15세기에 일시 정비되었던 군사제도는 16세기에 이르러 여러 측면에서 약화되고 병력도 상당한 정도로 감소되였다.

그것은 보법의 문란과 대역납포제의 적용 그리고 중앙군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었다. 보법이란 군사로 복무하는 정군 1명에 2명의 장정이 봉족이 되어 그 군정의 뒤바라지를 해주는것을 말한다. 1464년에 보법이 변화되어 종전에 3정1호로부터 2정1호로 바뀌게 되였다. 이 제도로 하여 군사들의 군역이 종전보다 더 무거운 부담으로 되였다. 실제로 3명의 장정 또는 5명의 장정이 있는 호인 경우 2명씩 보인을 만들면 1명은 다음 보의 성원으로 되며 3부자가 있는 집에서는 아버지가 정군이 되고 두 아들이 보인이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은 부자지간의 수탈관계를 산생시켰다.

이러한 보법의 문란으로 대역납포제가 적용되였다. 즉 중앙군에서는 대립, 지방군에서는 방수군포제라는 새로운 수탈을 낳게 하였다.

대립현상이란 수도에 올라온 군사가 군역을 치르지 않고 일정한 대가를 다른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 사람이 대신 병역을 치르는것을 말하며 대역납포제란 지방의 병사(병마절도사)나 수사(수군절도사)들이 일정한 군포나 쌀을 납부하는 군사의 군역복무를 면제해주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군역을 부담하는 군정들의 부담을 더욱 힘들게 하였고 또 각 고을 군사관리들의 탐욕을 조장시키였다.

이 시기 나라의 군사력에서 중추를 이루는 중앙군이 심히 약화되였다. 그것은 중앙군에 소속되어있지 않는 량반특수군이 신설되거나 확대된것과 적지 않게 관련되였다.

국왕을 비롯한 통치배들은 나라의 군사력강화는 안중에도 없이 중앙군의 기본전투성원들을 자기 측근의 호위임무를 수행하는데 돌리였고 겸사복, 내금위와 같은 호위부대들의 정원수를 계속 늘이거나 우림위와 같은 서자출신들로 구성된 부대들을 더욱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결국 나라의 방위력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군정의 수를 감소시키고 군대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봉건통치배들은 종전에 군역부담을 지지 않고있던 지방의 량반선비들의 자식들과 한량출신들로 새로운 부대를 조직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모자라는 군정을 보충하고 문란해져가는 군사제도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던것이다.

16세기 봉건정부가 정로위를 조직한 목적은 또한 삼포왜란을 계기로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상도의 방비를 강화하려는데 있었다.

정로위는 1512년 경상도에서 처음으로 조직되었다. 그 동기는 왜놈들의 조선에 대한 침략과 관련되었다. 1510년에 삼포(부산, 염포, 냉이포)에 거류하고있던 왜놈들은 4월 4일 100여척의 침략선과 4~5천명의 병력으로 이곳에 쳐들어와 인민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봉건정부는 경상도의 지방군을 동원하여 4월 19일 삼포에 등지를 틀고있던 왜적을 쳐부시고 성을 탈환하였다. 1512년에 조선봉건정부는 삼포왜란을 일으킨 주모자들의 머리를 베여가지고 온 일본막부 사신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하고 다시는 침략사건을 도발하지 못하도록 일정한 제한조치를 취하였다.

당시 적들의 병력은 4 000~5 000여명에 불과하였고 경상도의 군적에 등록된 군인은 8 000명이였다.\*

\*《중종실록》권13 6년 2월 26일 정미

경상도는 우리 나라 8도가운데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이었으며 따라서 군정이 그만큼 많아야 하였다. 그런데 8 000명의 병력으로 4 000~5 000명밖에 안되는 왜적을 치는 기간이 15일이나 걸린것은 당시 군대의 실태가 얼마나 한심한 처지에 있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로부터 새로운 특수병종을 경상도에 내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조직된것이 바로 정로위였다. 이에 대하여 봉건정부의 령사 류순정은 《경상도에는 선비들이 많다. 량계(함경도, 평안도)는 도가 비록 작지만 군정이 2~3만에 달하였는데 경상도는 도가 넓은 데도 군정이 8 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선비들과 한량자식들이 각종 방법으로 군역에서 면제되기때문에 군사가 모두 약하고 수가 또한 적다.》라고 하면서 군정의 확보를 빨리 할것을 국왕에게 제의한것은 당시의 경상도의 군정수가 얼마나 적고 전투력이 얼마나 약하였는가를 그대로 알수 있게 한다.\*

\*《중종실록》권13 6년 2월 26일 정미

결국 정로위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또다시 있을수 있는 왜놈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봉건정부가 경상도지방에 처음으로 내온 부대였다.

16세기 봉건정부가 정로위를 조직한 목적은 또한 지방에서 일정한 영향력과 경제력을 가지고있던 선비들과 한량자식들을 소속시켜 모자라는 군대를 충당시키자는데 있었다.

16세기 봉건정부는 국가재정의 고갈로 군대를 유지하기 힘든 형편에 있었다. 특히 중앙군의 골간을 이루고있던 갑사나 검사복, 내금위는 그 정원이 수천명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군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건통치배들은 선비와 한량자식들을 정로위에 소속시켜 모자라는 비용을 자체로 부담시키고 그

대가로 그들에게 일정한 벼슬을 주었다.

실지로 당시 경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들에서 정로위에 입대한 선비들과 한량들은 일정한 토지를 소유하고있던 중소토지소유자들이였으며 그들은 군비를 자체로 부담하는 것을 별로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다.

정로위가 중앙의 금군을 대신하여 해당 지역의 방어를 담당할수 있었고 정로위에게 효과적인 방어와 군사비지출을 맡길수 있는것으로 하여 처음부터 봉건정부는 많은 량반 선비자식들과 한량들을 여기에 끌어들이려고 하였다.

16세기에 봉건정부가 정로위를 조직한 목적은 또한 량반선비들의 벼슬진출에 대한 불만을 늦추고 그들을 더 잘 장악하자는데도 있었다.

량반선비들은 대체로 땅을 소유한 토지소유자들로서 한성의 4학이나 지방의 향교에 들어가 유생으로 공부하고 과거시험을 거쳐 생원, 진사뿐아니라 문과나 무과의 정직벼슬에도 오를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량반선비라고 자처하는 유생들속에는 지방의 향리나 한량자식들도 적지 않게 있었으므로 정로위의 신분적구성이 일원화되지 못하고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향리나 한량의 자식들이 정로위에 들어가는 현상과 관련하여 량반선비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 문제가 중앙에까지 제기되게 되었다.

봉건국가는 량반선비들의 이러한 불만을 늦추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당시 병조의 제의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지난번에 정로위에 선비자식들만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조정에서 자기 신분을 밝히려고 하였다. 정로위의 정원은 1 500명인데 그 원액을 무시하고 원하는자들을 모두 속하게 하였다. 때문에 정로위의 수가 매우 많아져 정병과 <갑사>를 피하려는자들이 모두 이곳에 오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로위의 정원을 회복시켜 선비들만 여기에 소속시키고 한량, 향리자식들은 <갑사>, 정병으로 내리도록 하자.》\*

\*《명종실록》권15 8년 9월 계유

우의 기사에서 본것처럼 처음에 봉건국가는 정로위에 소속된자들로서 량반선비층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한량, 향리의 자식들까지 포함시켰다. 그러나 그 정원이 많아 관직을 주어야 할 대상자가 많아지게 되자 량반선비층의 자식들만 여기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점차 정로위를 량반들로 무어진 병정으로 되게 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이처럼 정로위는 16세기 전반기에 문란해진 군사제도를 바로잡고 중앙과 지방의 군사력을 강화하며 량반신분층을 더 잘 장악하려는 봉건정부의 의도로부터 조직된 부대였지만 실제적으로 량반지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데 복무하였다.

정로위의 신분적구성을 보면 우선 량반선비들이 절대다수를 이루고있었다.

그것은 16세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의 량반선비들속에서 문반진출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고 그것이 정로위라는 군역의 대가로 이루어진데서 나타났다.

정로위의 절대다수가 량반선비들로 구성되었다는것은 봉건관리인 정만종이 국왕에게 올린 상소에서 잘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는 귀천의 명분이 엄격하다. 량반의 자제는 공부하지 않아도 벼슬에 나설수 있다.》\*

\*《중종실록》권81 31년 18년 1월 11일 정묘

자료에서 보는것처럼 봉건정부는 량반선비자식들을 정로위에 소속시켜 일정한 군역을 지우게 하였으며 량반선비자식들은 그 대가로 해당하는 정직벼슬을 받고 관직에도 진출할수 있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의병대를 무어 활동한 봉건유생들의 절대다수가 이 시기부터 정로위에 소속되어 일정한 군사훈련을 받던자들이었다.

정로위의 신분적구성을 보면 또한 많은 재력을 소유한 일부 한량이나 향리자식들도 포함되어있었다.

그것은 봉건관리였던 정만종이 《...량반이라고 자처하는자들중에는 량반이 아니면서도 공부하지 않는자도 있는데 스스로 량반이라고 자처하면서 벼슬을 받으려고 한다. 풍속이 이에 고질화되어 사람들이 관가에 고소하지 못하고 사또 또한 그들의 원망을 두려워하며 군역에 충당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한량이나 향리자식들의 군역을 량반선비들과 같이해야 한다고 국왕에게 상소한데서 알수 있다.

\*《중종실록》권81 31년 1월 11일 정묘

여기서 사또들이 군역에 《충당》시키지 못하는자들은 대체로 신분적으로 량반으로 되었다가 어떤 정치적풍파를 겪어 관직자를 배출하지 못하여 한량이나 향리로 떨어진자들이었다고 짐작된다.

이것은 김종직의 손자의 정로위입대문제를 가지고 설명할수 있다. 16세기말에 사림파의 우두머리의 한사람이었던 신의겸이 김종직의 손자를 정로위에 입대시키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국왕에게 《김종직은 성종시기 문장뿐아니라 글씨도 잘 써서 이름이 높았다. <무오사화>(1498년)때 연산군이 관직을 박탈하고 부관참시했는데 그 뒤로 자손이 쇠약하여 한사람도 급제하지 못하고 지금도 벼슬살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 벼슬에 등용하기 바란다.》라고 상소하였는데 국왕 선조는 정로위를 통해 군역을 마치면 벼슬을 주라고 승인하였던것이다.\*

\*《선조실록》권7 6년 11월 2일 병신

자료를 통해 정로위에 들어가는 한량이나 향리자식들은 조상들이 지방의 유력한 토호들이나 량반의 신분적자격을 가졌던자들이었다고 볼수 있다.

결국 정로위는 봉건국가가 량반의 순결성을 보장하면서도 취약해진 군사력을 보강하고 중앙과 지방의 방어를 강화하려는 궁여지책으로부터 만들어낸 지배계급출신의 군대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정로위의 활동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정로위의 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우선 다른 량반부대들과는 달리 체아록에 대한 지급이 규정되어있지 않는데 있다.

정로위는 그 정원이 1 500명이었는데 시취를 통하여 선발되었다. 6번으로 나누어 복무하는데 근무일수가 75일 지나면 품계를 올려주었다. 정로위에 들어가는 량반선비층들은 체아록이 없이도 자체로 군비를 충당할수 있는 경제적이능력이 있었기때문에 이 75일간의 단기복무로써도 한등급 승진되었다. 이것은 당시 량반의 특수군인 겸사복이나 내금위 등이 180일간 복무해야 품계를 한등급씩 받는것에 비해서는 하나의 특전이었다.

정로위의 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또한 그 복무가 상대적으로 험하였다는데 있다.

당시 정로위가 얼마나 험한 병종으로 되었는가 하는것은 그 복무기일이 짧은데도 있

었지만 수도에 올라와 근무나 서고 지방의 변방에 파견되어 경비상태를 감독할수 있는 특전을 가지고있는데서 잘 알수 있다. 그렇기때문에 정로위에는 량반선비는 물론 한량이나 향리의 자식들, 부유한 량인들까지 제한을 무릅쓰고 입대하려고 하였다.

정로위는 일련의 제한성으로 하여 문란하여진 군사제도를 바로잡고 나라의 방위력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할수 없었다.

정로위는 우선 봉건통치배들의 계급적리익을 실현하는데 리용되었다.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계급적리해관계로부터 량반신분의 순결성을 보장하고 그 신분에 다른 신분층이 끼여들지 못하도록 엄격한 제도적장벽을 만들어놓았다. 그 장벽을 고수하는데서 기본은 벼슬을 다른 신분층에게 주지 않는것이였다.

지방의 량반선비들에게 벼슬을 주는 방법을 고안해낸것이 정로위라는 군역이였다. 량반선비층들은 군역을 통해 벼슬을 받음으로써 량반신분으로서의 지위를 고수하였던것이다.

정로위는 또한 중앙의 금군을 대신하여 중앙과 해당 지역의 방어를 담당하는 기간정병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지 못하였다.

정로위는 그 목적이 취약해진 군사력과 병력을 보충하자는데 있었지만 실지로는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하였다.

봉건국가는 정로위에 입대하는자들에게 체아록을 줄수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강한 군사훈련과 중요한 군사임무도 주지 못하였다.

이처럼 정로위는 삼포왜란을 계기로 조직된 특수병종으로서 문란해진 군사제도를 보강하려는데로부터 나왔으나 실제로는 나라의 방위력에 이바지하는 정병으로서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봉건통치배들의 계급적지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였다.